

# 동포들의 심리에 맞는 문화체육활동을 벌리도록

주제 81(1992)년 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총련인군들을 만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는 문화체육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동포군중을 교양하고 총련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동포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데서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리는것이 좋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총련인군들은 누구라 없이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렀다. 문화체육활동을 단 순히 동포들의 문화정서 생활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데가 위대한 수단으로,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시었다.

제일동포사회에서 문화 체육활동은 각이한 동포들이 이리저리한 울타리를 넘어 하나로 어울릴수 있

는 중요한 생활공간이었으며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민족의 기개를 시위하는 좋은 계기였다.

바로 이 점을 환히 꿰뚫어보신분이 위대한 장군님 이시었다.

이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소조들과 체육소조들을 많이 조직하고 그 운영을 다양 화, 정상화함으로써 광범 한 동포대중의 민족자주의 식을 높이고 사회주의조국

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고귀한 가르침이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총련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친필필로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총련인군들은 넓고 뒤떨어진

관념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새로운 계두에서 밀고나가며 특히 동포들이 자각적으로 즐겨 참가하는 예술활동, 체육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본때있게 벌 리는 새로운 결심을 다 지였다.

이후부터 총련의 동포 사업에서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이게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 절세위인들과 총련

###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제일본조선민주성동맹과 제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총련의 군중단체들이 총련부흥의 새

#### 모두가 앞서나가는 단위로

제일본조선민주성동맹(녀성동맹) 가나가와현 본부에는 9개의 지부가 있다.

지난 시기 지부들의 조직력이나 활동수준에서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임무를 다해나가고 있다.

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마당으로 만들었다.

또한 지금껏 지부에만 맡겨온 문화강화사업을 현 부본성인들이 함께 책임졌다. 이는 지부일군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본부에서는 《미풍, 단결, 사랑》의 주제로 진행 된 문화강화사업에 모 든 지부, 분회들을 열기 시키었다. 경쟁도표를 만들어 놓고 뒤떨어진 분회

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책을 수시로 토의하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지혜를 모아 풀어나 갔다.

결과 활동이 완만하였던 분회들이 정상상태에 들어 갔다.

그나 1개 분회가 종합

모범분회로, 2개 분회가 부본별모범분회로 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지금 녀성동맹 가나가와현 본부의 모든 지부, 분회성원들은 자기 단위를 애국애족의 순결이 넘치는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 기층조직강화에 힘을 넣어

올직이는 2개 조청반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악성전염병의 대유행속에서도 지부별, 반별경쟁 열의는 나날이 높아졌다.

그러하여 본부는 최근 몇해동안에 56개 조청반을 모두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상임위원회로부터 맡긴기층조직인 조청반에 이르는 모든 조직들을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믿음직한 성들로 반씩같이 다져나가는 이런 헌신적 노력에 의해 조청사업에서는 날로 큰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대중중심의 정치제도와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공화국의 현실앞에서 마침내 사상전환의 뜻을 올린 인생의 인생행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예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주고있다.

김성락선생은 1903년 5월 평양의 두단리(당시)의 부유한 교원의 가정에서 만이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당시 평양 신암동의 목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부친의 뜻을 따라 평양 숭실중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일찌기 미국장로교계통의 선교사들이 전도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에 세운 학교였다.

선생의 부친은 반일감정이 남달리 강하였다.

선생은 3.1인민봉기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부친과 일제식민지통치에 단호히 맞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보면서 건전한 반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미국유학의 길에 올라 종교학을 전공한 선생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보통강일대의 교회목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일제가 강요하는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련북어국의 길에서 참된 삶의 자욱을 새긴 목사 (1)



인생의 출발은 비록 잘못 때였어도 말년이나마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뚜렷한 삶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다.

애국인사 김성락선생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목사, 그는 어쩌하여 인생살이내에 자기 인생의 신조와 결별하고 련북어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제도와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공화국의 현실앞에서 마침내 사상전환의 뜻을 올린 인생의 인생행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예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주고있다.

김성락선생은 1903년 5월 평양의 두단리(당시)의 부유한 교원의 가정에서 만이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당시 평양 신암동의 목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부친의 뜻을 따라 평양 숭실중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일찌기 미국장로교계통의 선교사들이 전도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에 세운 학교였다.

선생의 부친은 반일감정이 남달리 강하였다.

선생은 3.1인민봉기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부친과 일제식민지통치에 단호히 맞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보면서 건전한 반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미국유학의 길에 올라 종교학을 전공한 선생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보통강일대의 교회목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일제가 강요하는

하지 않을수 없었다.

평시에 가깝게 지내오던 연론인 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남조선에서는 복음이 깃뚫히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교는

올당 죄악과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도가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가. 현대 놀라운것은 북에서는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이 실시되고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

하지만 선생은 그것을 리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여 1960년대초 다시 미국행에 오던 선생은 로스앤젤스 연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반파쇼민주화운동을 벌 리는데 힘을 쏟고자 하였다.

이 땅에 민족분열의 비극이 시작된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1980년대가 다가왔다.

당시 미국에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 《한국인교회연합회》 교무으로 있던 김성락선생은 그러한 고국망을 밝히 보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수십년동안 이역의 하늘 밑에서 살아오면서 언제나 그리워마지 않던 고국망을 생전에 찾아가보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선생은 드디어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총련녀맹宝塚지부

安倉分회총회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몽개버리며 (5)

1977년 7월. 《EC-121》대형강습비행기사건과 판문점사건 등 반공화국도발행위를 저질렀다가 영용한 조선인민군에 호되게 얻어맞은 미국은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무장직승기를 통해인 공화국령공에 깊숙이 불법침입시키는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만단의 경제대세를 유시 하고있던 조선인민군 고사포병들이 즉시 경고사격을 하였다.

질겁한 미군무장직승기는 살려달라는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만술책이었다.

적들은 인민군대가 경각성을 늦추도록 착륙하는척하다가 유희하게도 초저공비행으로 달아날 기회를 노렸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술책에 넘어갈 인민군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무장직승기

가 기회를 타서 도망치려고 하자 즉시 포화력을 퍼부었다. 미군무장직승기는 삼단같은 불길에 휩싸여 격추되고말았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늘 미군직승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구선봉상공을 거

사건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상보가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을 날았다.

상보가 발표되자 세계는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선인민에게는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그때 미국의 어느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미국이 스스로 제 승리를 잃는 자살행위이다.

미국은 김정일장군이 제시하는 어떤 어느한 전두에서도 승리할수 없다. 《승리할수 없는 전쟁》, 이것이 오늘 미국의 사전에 올라야 할 술어이다.》

이렇게 미군직승기사건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또다시 시위한 사건으로서 도발자들에게 차레 질겼이란 언젠나 수지와 멸망뿐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

히 접어들 생각을 못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그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군대의 총대가 저들의 승승을 겨누고있는데 잘못했다고 비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것이다.

그때 미국의 어느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미국이 스스로 제 승리를 잃는 자살행위이다.

미국은 김정일장군이 제시하는 어떤 어느한 전두에서도 승리할수 없다. 《승리할수 없는 전쟁》, 이것이 오늘 미국의 사전에 올라야 할 술어이다.》

이렇게 미군직승기사건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또다시 시위한 사건으로서 도발자들에게 차레 질겼이란 언젠나 수지와 멸망뿐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

### 도발자들에게 차레 질것은 비참한 운명 별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준 미군직승기 격추사건

### 조선침략을 노린 《운양》호사건

《운양》호사건은 1875년 9월 일본침략자들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19세기중엽 《명치유신》으로 알려진 부르조이개혁을 실시하자마자 대조선침략정책인 《정한론》을 들고 나온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9월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자기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고 꾀하였다.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킨 일본침략자들은 그 무섭 《발포연습》을 한다고 위세를 돌리었다. 조선봉건정부가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고 라산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해 9월 항로를 측량한다는 구실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또 다시 침입시켰다.

남의 명분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것이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불법침입한 일본침략선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

사전에 군사정탐임부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왔기 때문

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복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 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정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토설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물이 떨어 졌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당시 한성을 지키는 군사요충지였던 초지진포대군처에까지 기어올랐다.

초지진의 조선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렸다. 그러나 《운양》호의 침략무리들은 방어가 약한 섬들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 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행위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 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



아래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야겠다.》, 《이 손해배상대신으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봉건정부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지어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에 의한 로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 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보안법》의 칼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역적패당이 지난 6월과 7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보급한 《민중사랑방》, 《통일시대연구원》의 진보적인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보안법》에 걸려 걸거하고 사무원들을 수색하면서 각종 자료집들과 컴퓨터기록들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저지르는데 이어 지난 《8.15전국로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공동결의

문을 발표한 로동운동단체들의 위대한 력사가 담겨져있다. 하기에 불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애국애족의 교과서

로 받아안고 읽고 또 읽으며 거기에 담겨진 숭고한 뜻과 정신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출판보급했다고 해서 《보안법》의 칼을 휘두른것은 정의와 진리, 민족을 등진자들의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고 해서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을 《보안법》 위반

하는 인권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 및 운동단체들이 《보안법》은 인간의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인권악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악법이다.》라고 하면서 반윤석열투쟁, 《보안법》철폐투쟁에 파급이 펼쳐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옹당하다.

민심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동족제국, 파쇼와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차레 질것이란 인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어 장 수

### 악법이 살판치는 피썬시회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이야말로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 민심에 칼부림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항일의 혈전민리를 헤치며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절세의 애국자

로 받아안고 읽고 또 읽으며 거기에 담겨진 숭고한 뜻과 정신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출판보급했다고 해서 《보안법》의 칼을 휘두른것은 정의와 진리, 민족을 등진자들의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에 걸려 탄압하려고 날뛰고 있는것도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파쇼강매들의 란동이다.

평생 사람잡이에 미쳐날뛴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하여 힘악한 군사파쇼독재시대가 되살아나고있는오늘의 남조선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정의) 7조(찬양·고무 등) 위반정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2022.9.15(목) 12:00